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2019년 12월 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주원철(044-201-2031), 사무관 전효주(2038) / 제공일: 11월 29일(총 2매)		

적정없이 증가했고 안정적이고 소비하는 나라

2019년 제1차 주요 협력국 국내 초청연수 완료 -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주요 농업 협력국 중 14개국의 농업분야 공무원과 농업인 등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의 농업·농촌 발전경험, 정책, 기술 등 공유
 - * UAE(4명), 루마니아(3), 러시아(4), 미얀마(4), 인도네시아(4), 캄보디아(4), 라오스(4), 몽골(1), 몰도바(4), 피지(4), 카타르(4), 카자흐스탄(1), 키르기즈스탄(4), 필리핀(3) (총 48명)
- ◆ 올해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주요 농업 협력국과의 농업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주요 농업 협력국 중 선발된 14개국의 농업분야 공무원과 농업인 등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의 농업·농촌 발전경험, 정책, 기술 등을 공유하는 초청연수를 실시했다.
- 이 초청연수는 두 차례(1기: 2019.11.16~23, 2기: 2019.11.24~12.1.)로 나뉘어 각 8일간 진행되었다.
 - 이 과정에 초청된 연수생 48명은 한국의 농업·농촌 발전과정 및 농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,

- 농식품 생산 및 연구 분야와 수확 후 관리(가공·저장·유통) 분야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농업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.
-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주요 농업 협력국들과의 농업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,
 - 내년에는 연수생들의 관심이 높았던 정보통신기술(ICT) 융복합 스마트팜과 수직농장(식물공장), 농기계 등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이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* 관련사진 2매(1기, 2기) 별첨